

집사 빌립의 순종!

본문: 행 8:26-31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일곱집사중 한명인 빌립의 순종과 그에 따른 놀라운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집사 빌립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1. 첫 단계로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는 장소에 무조건 순종해서 움직였습니다

본문 26 절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사마리아에서 사역하는 빌립에게 뜬금없이 주의 사자(천사)가 나타나 갑자기 남쪽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사마리아와 유다 산지를 따라 뻗어 있는 족장의 길을 따라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지나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를 거쳐 지중해 해변의 가사(지금의 가자 지구)로 내려가는 광야길로 가라는 것입니다. 네게브 광야를 지나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뜨거운 모래바람과 따가운 태양 밖에 없어서 숨 쉬고서 있기도 힘든 곳입니다. 독사와 전갈이 있어 위험한 곳이고, 사람은 물론 아무 것도 살 수 없는 황량한 곳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행 8:4-13 에 기록된 바와 같이 빌립은 사마리아로 와서 전도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병고침과 귀신이 쫓겨 나가는 등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며 수많은 영혼을 구령하고 있는데, 그 사역을 멈추게 하고 광야길로 가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혀 상식과 이치에도, 그리고 경험에도 맞지 않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고, 또 지금 그 곳에 가도 거기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빌립도 아마 처음엔 이해가 바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아해 할 수도 있고 나아가 서운해 할 수도 있는 명령입니다. 게다가 왜 가라고 하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놀랍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여 곧바로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본문 27 절 전반 “일어나 가서...” he started out, and on his way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본국으로 귀가중인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무담당 고위관리 일행을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he met an Ethiopian eunuch

본문 27 절 “...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 돌아 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인들을 이해를 못합니다. 나아가 “미쳤다”고 조소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은 갈 바를 모르고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히 11:8).

더 크게는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시 37:23).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하늘의 축복은 사람의 이성과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하나님의 지시에 아무 조건 없이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2. 둘째 순종의 단계로 빌립은 성령님의 지시에 따라 사람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본문 29 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광야에 이르렀을 때 빌립은 병거의 행차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지시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 빌립은 성령이 지시하신 일이 무엇인지, 자기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빌립은 머뭇거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본문 30 절 “빌립이 달려가서...” ran up

택한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이 성령의 지시에 순종한 빌립을 열심으로 일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병거 옆에서 내시의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읽는 것을 깨달느뇨”라고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내시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고 인정하며 빌립을 자신의 병거에 같이 앉게 하였습니다.

본문 30-31 절 “...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달느뇨 31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뇨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이후 이 놀라운 만남의 사건은 어떻게 진전되었습니까?

내시가 병거에서 읽고 있던 이사야 53:7-8 절 성구에서(32-33 절) 시작하여 빌립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8:35).

그러자 내시는 진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오아시스에서 세례를 즉각적으로 받았습니다 (8:36-38). 세례가 마쳐진 직후 주의 영(성령님)이 빌립을 갑자기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하여 내시는 빌립을 다시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본국으로 계속 길을

행했습니다. 결국 빌립의 전도로 구원받은 내시를 통해 에티오피아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며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 일 아닌 것처럼 보이고, 전혀 이치가 맞지 않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씩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치 계단을 한 번에 점프해서 오르기가 어렵듯이, 한 번에 완전히 순종하기는 대부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빌립처럼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조금씩 순종해 나간다면 결과적으로 온전한 순종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3.이번에 진행하고 있는 “세상의 빛 새생명 전도축제 III!” 오늘로 선포후 2 주차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되는 사역처럼 보이기도 하죠? 대부분의 교회가 교인수가 작아져 문을 닫고 있는데... 그나마 존립하는 교회들도 새가족이 들어오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인데... 전도가 안된다고 아우성들인데...

새가족 목표인원 20 명이 황당하고 아무런 밀받침도 없어 보이고... 교인수도 얼마 되지 않으면서... 게다가 대부분 연약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고... 등등.

그러나... 각 개인과 가정, 교회 성장과 부흥을 위한 절대적 요소는 순종입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는 다 순종의 역사입니다. 믿고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았는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적은 없습니다.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주님의 유언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주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순종하면 개인과 가정은 물론 교회는 반드시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됩니다.

씨는 뿌리면 반드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시 126:5-6).

전도는 나가면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지 않으면 없습니다.

많이 뿌리면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적게 뿌리면 적게 납니다.

아무 것도 안뿌리면? 아무 것도 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전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제자들도 순종해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통해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모두도 집사 빌립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한걸음 한걸음씩 순종하여 전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빛교회 민경수목사드림-